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9 권 19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성당사무실 시간: 화요일 ~ 금요일(9:30AM ~ 6:00PM)
한인 공동체 이메일: sanclemente.kc@gmail.com

미 사 성 가	입당 (489)	봉헌 (217)	성체 (152)	파견 (115)
---------	----------	----------	----------	----------

제1독서 | 이사 43,16-21

화답송 | 시편 126(125),1-2가.2다-3.4-5.6(◎ 3 참조)

- ◎ 주님이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찼네. ◎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 겹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제2독서 | 필리 3,8-14

복음환호송 | 요엘 2,12-13 참조



Praise to you, Lord Je- sus Christ, King of end- less glo- ry!

복 음 | 요한 8,1-11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나이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4/7	이 그레이스	이 바오로	박 다니엘
4/14	이 마틸다	이 요한	박 다니엘
4/21	이 그레이스	이 바오로	박 다니엘
4/28	유 요한	이 요한	박 다니엘

영어독서: 손 데레사

우리의 정성

미사책 대금: \$

지난 주일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185	\$	\$300

성당 청소 봉사자 일정

청소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3 시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 요한 총무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3/23	유 요한/ 유 마리아	4/27	김 마론/ 김 헬레나
3/30	이 그레이스/ 김 마르타	5/4	박 바오로/ 박 세라피나
4/6	홍 마르코/ 홍 아녜스	5/11	손 아놀드/ 손 쟈마
4/13	김 요아킴/ 고 안나	5/18	이 글라라/ 장 글라라
4/20	김유스티노/김유스티나	5/25	박 벨라델타/ 정 루시아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한 기도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공동체 소식

성체조배: 매달 첫째 목요일 오후 6시 30분

성체조배를 통하여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성체조배는 4월 4일 입니다.

한인공동체 임원회의: 매달 두번째 일요일 오후 7시 30분

임원 분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임원회의는 4월 14일 입니다.

공동체 기도성가 모임: 매주 목요일 오후 7:30

성가와 말씀 나눔, 기도로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시간을 많은 형제, 자매님과 함께 하기를 희망 합니다.

장소: 6351 Aker Rd. #7, Bakersfield. CA 93313

성경공부: 주일미사 후 친교실에서 (셋째 주 제외)

매주 미사 후 코린토 후서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형제 자매님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도 세금 보고용 영수증 신청

세금 보고용 교무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재무부장님께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 매주 금요일 저녁 6시 30분

매주 금요일에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사순 희생 예물 봉헌 안내

사순 기간동안 단식등 희생으로 마련된 정성을 봉헌할 때 준비된 사순 예물봉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꽃 봉헌(4월 14일까지)

부활절 백합꽃이나 현금으로 봉헌 하실 분은 4월 둘째 주일 까지 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이삭

사순 시기를 보내며

-오수진 아가다 | KBS 기상 캐스터-

사순 시기를 시작하며 과거의 나는 과연 어떤 다짐을 하고 어떤 용서를 청했을까 궁금해져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의 한 문장 앞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에 제가 쓰일 수 있도록, 그 뜻을 실행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세요.”

주님의 은총과 기적을 체험했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었는데도 아직 충분히 용기 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방송인으로서 제 개인적인 체험을 나누는 것이 환우분들과 가족분들께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크지만, 누군가에게는 조그마한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도구로 제 삶을 헌신하고 싶다는 기도 안에서 과거의 기억을 조심스럽게 꺼내봅니다. 2010년 방송국에 첫발을 디딘 후로, 정말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몸이 여러 신호를 보내오는 것도 무시한 채 오직 앞만 보며 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감기에 걸렸고, 여느 때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몸 상태가 개선되지 않았고, 일주일 동안 고열이 계속되었습니다. 급히 병원을 찾아 엑스레이를 찍었고, 그 길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생사를 다투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병명은 확장성 심근병증이었고, 심장과 폐의 역할을 대신하는 여러 기계장치를 달아야 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새 심장을 이식받지 못하면 괴사가 시작되어 여러 합병증이 나타나며, 언제 삶을 마감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수일 내에 조직이 맞는 공여자를 만나야만 하는 상태였고, 거의 가능성이 없는 그

마지막 희망 외에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때 주변에서는 참으로 많은 기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신앙인이 아니셨던 아버지도 신부님의 손을 잡고 매일같이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마르 9,24) 그러한 간절한 기도들이 하늘에 닿았는지, 나흘 뒤 새벽 저와 90% 일치하는 심장이 나타났습니다. 신앙인이 아니셨던 아버지께서 의료진 앞에서 ‘이 아이는 이제 제 딸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딸이에요’라고 고백하셨던 것처럼, 저는 기적을 체험했고, 빠른 회복세로 새로운 삶의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께서는 교리 공부를 시작하셨고, 저는 성가정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세상의 다른 많은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의 힘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사람의 기도하는 두손으로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마태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느님께서 이뤄주신다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나와 가족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하면 분명 주님께서는 적당한 때에 당신의 방식으로 들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와 우리, 여러분의 평화를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도 두 손을 모아 기도합니다.